

제65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25일)

## 신라의 동서 문물교류

윤상덕, 108호 신라실 18:00~18:30

신라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마 ‘신라가 어떻게 동아시아의 강자였던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일 겁니다. 단순히 당나라의 힘을 이용했던 결과일까요? 신라인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타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는 힘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가야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방 유목민족, 왜, 그리고 멀리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서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는 신라의 독특한 점입니다.

6세기 이전에는 서아시아와 직접 교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중국 대륙이나 고구려를 통해 서아시아 지역의 문물을 수입했을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은 이슬람 사절과 상인들이 빈번히 왕래하였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통일신라도 당나라에 사신을 120여회 파견하였습니다. 사신들이 장안에서 서아시아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문물을 직접 접하고 신라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서아시아의 문물은 신라가 머나먼 서쪽 나라들과도 접촉하고 교류했음을 알려줍니다. 대표적 유물은 유리그릇입니다. 신라의 왕릉급 무덤인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약 25점에 이르는 유리그릇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중해 연안과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져 실크로드를 따라 수입된 것들입니다. 경주 계림로 14호묘에서 발굴된 황금보검도 양 지역의 교류를 보여줍니다. 칼 집 표면을 금판으로 덮고 무수히 많은 금알갱이와 붉은 석류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외에 은제타출무늬잔, 금제팔찌, 상감유리구슬 등도 서아시아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서아시아와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유물은 뿔잔(角杯)과 동물모양 그릇입니다. 뿔잔은 소나 양 등의 뿔을 이용하여 잔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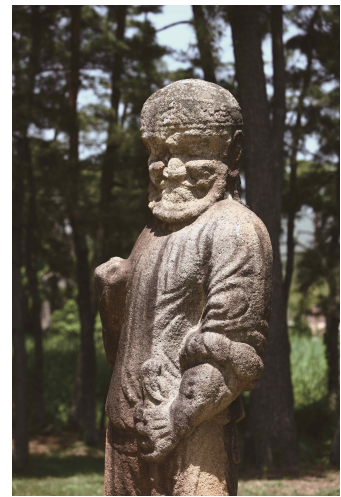
각종 유리그릇



황금보검

술 같은 음료를 담아 마시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들이 즐겨 썼다고 하며, 서양에서는 Rhyton이라고 불리며 서아시아지역에서는 의식 행사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뿔로 만든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주로 귀금속이나 옥, 그리고 흙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아시아의 뿔잔에는 동물의 상반신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동물의 가슴 부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보인다. 뿔잔과 함께 이를 세우는 받침대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신라 토기에 즐겨 장식하던 무늬를 뿔잔 표면에 새기기도 하여 신라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아시아 지역처럼 동물 모양의 토기가 많이 출토됩니다. 비록 주전자로서의 용도나 세부적인 형태는 신라 고유의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지만, 동물을 소재로 한 점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문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 사람들이 경주에 왔었던 증거는 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괘릉과 흥덕왕릉의 무인상의 모습은 이국적입니다. 신라에서 벼슬을 했던 서아시아인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현강왕 5년(879)에 ‘생김새와 복식이 괴이한 사람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강왕 때의 처용 설화도 울산항을 거쳐 들어 온 서아시아 상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제65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25일)

## 조선의 사행(使行) 기록

- 1624년, 명나라를 향해 떠난 바닷길

유새롭, 118호 조선실2 18:00~18:30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는 왕조 교체가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즉위해 양안과 호적을 정리하는 등 전후 복구 사업에 힘을 쏟는 한편, 북방에 새롭게 들어선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외교 노선은 후금과는 거리를 두고 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명 조정에서는 인조 즉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는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조선 안팎의 상황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으로부터 인조의 고명誥命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624년 명나라로 향한 사행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정규 사행로는 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넘어 요동을 거쳐 산해관을 지나 북경으로 가는 육로였으나, 당시 후금이 요동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를 피해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여정은 평안도 객산의 선사포에서 출발하여 가도, 녹도, 석성도 등을 거쳐 등주에 상륙한 후 산동성과 하북성을 거슬러 올라가 북경에 도착하는 경로로, 기존의 육로 사행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이덕형李德炯을 비롯한 사신 일행은 여러 차례 외교문서를 올리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명 조정의 반대파를 극복하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항해조천도』는 이처럼 사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을 기념하는 그림첩입니다. 명청교체기의 혼란함, 불안한 정국, 험난한 바닷길을 뚫고 긴 여정을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 그리고 중화문명의 핵심지를 견문했다는 감격 등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선사포에서 북경에 이르는 사적과 풍경, 선사포로 다시 돌아와 배를 대는 장면 등 총 25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 끝부분에 후일 바닷길로 사행할 자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고자 사행에서 돌아온 뒤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제작목적을 밝힌 이덕형의 발문이 있습니다. 이 때 사행 기록으로는 당시 서장관이었던 홍익한이 기록한 『화포선생조천항해록』이 남아 있습니다.





<항해조천도 주요 장면>



그림1. 평안도 곡산 선사포 출발



그림2. 석성도 근처 바다에서 용을 만남



그림3. 산둥반도 등주항 도착



그림4. 제남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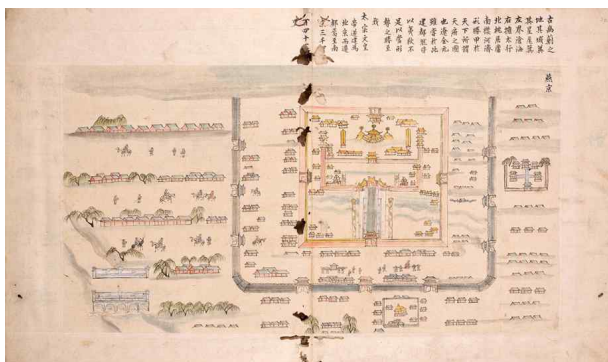


그림5. 연경(북경) 도착



그림6. 선사포로 무사 귀환

##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마곡사 괘불

정명희,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마곡사 괘불>, 조선 1687년, 삼베에 색,  
1,069×713.8cm, 공주 마곡사, 보물 제  
1260호

2006년 봄부터 시작한 국립박물관의 14번째 괘불 전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의 본사인 충남 공주 마곡사의 '석가모니불괘불탱'을 모셨습니다. 마곡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7개 사찰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불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뛰어난 불화승을 배출해 낸 화소로 유명합니다. 북방화소로 금강산 유점사, 서울 경기권에는 수락산 홍국사가 있었다면 남방화소였던 마곡사의 화맥은 근대기 불화의 전통을 증명합니다.

세로 11.7미터, 가로 7미터가 넘는 마곡사 괘불은 1687년 5월에 많은 승속이 참여해 조성했습니다. 뜻을 함께 해 시주에 참여하고, 불화를 제작한 후 성물로서 봉안하는 의례에 참여했을 많은 대중 중 화기에 이름을 남긴 이만도 126명이 넘습니다.

이 불화는 능학, 계호, 유순, 처묵, 이행, 정인 등 여섯 분의 스님이 그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석가모니부처님은 육계를 지니고 법의를 입은 여래의 모습이지만 마곡사 괘불에서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화려한 천의를 입고 영락으로 장엄한 보살 모습입니다. 두광 우측에는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이라는 존명이 적혀 있어 장엄신에 연꽃을 든 존상이 조선시대에 석가모니불로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존불의 상단 좌우에는 원만보신 노사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 도해되어,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은 하나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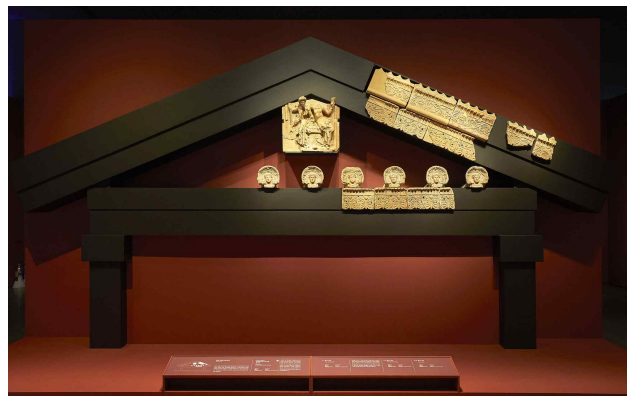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국의 괘불은 120점입니다. 박물관은 매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괘불을 모시는 일을 성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괘불의 도상, 신앙, 불화를 그린 화승의 스타일, 미술사적 가치. 괘불 제작의 사회경제사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또한 괘불이 걸린 공간에서 이뤄졌던 불교의례라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2) 불치 신전의 페디먼트

노회숙, 기획전시실 19:00~19:30

불치 신전의 페디먼트는 에트루리아 신전 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티레니아 해안지역에 위치한 불치Vulci는 에트루리아 12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불치에서 확인된 이 테라코타들은 페디먼트 중앙의 윗부분을 장식한 대형 장식판, 지붕 기와의 끝부분을 마감하는 장식 기와, 그리고 페디먼트를 장식한 기와 등으로 조형미와 색채감이 뛰어납니다.



불치 신전의 페디먼트, 기원전 3~2세기,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신전 페디먼트의 중앙 윗부분에 장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장식판은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가 묘사되어 있어 이 신전이 디오니소스를 위해 지어진 신전이었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에트루리아의 푸플룬스, 로마의 바쿠스에 해당됩니다. 기와의 끝부분을 마감한 장식 기와는 여성의 얼굴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 주위로는 넝쿨무늬가 장식된 판이 감싸고 있습니다. 수막새에 해당되는 이 장식 기와는 안료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페디먼트를 장식한 네모난 장식 기와는 넝쿨무늬가 있으며 윗부분의 작은 얼굴 주위로 날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와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은 테라코타를 나무판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디먼트 위 지붕 쪽에 장식된 기와는 연꽃무늬 등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안료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신전은 나무로 제작된 보에 지붕이 얹어지고 기와로 마감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은 테라코타 판으로 마감하여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채색된 테라코타는 미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신전 모습은 리파벨로에서 확인된 신전 모양 유골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디먼트의 중앙 윗부분을 장식한 장식판과 장식 기와의 모습이 불치 신전과 유사합니다.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불치 신전의 페디먼트는 에트루리아 신전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